

보도일시	2023. 3. 21 (화) 10:00	배포일시	2023. 3. 21 (화) 10:00
담당부서	수자원관리처 시설개선부	책임자	부장 이용만(061-338-5561)
		담당자	대리 우재성(061-338-5519)

농어촌공사,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강화

- 저수지, 배수장 등 전국 14,476개소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점검 -
- 안전난간, 인명구조함 등 안전 대책 시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-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 대책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.

공사는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 3,428개소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4,476개소에 대한 분기별 안전 점검으로 위험 요소, 보완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.

또한, 안전펜스, 인명구조함, CCTV 설치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의 안전 대책시설* 정비 및 설치 확대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.

* 안전 대책시설 현황: 인명구조함(4,632개), 안전펜스(586km), 안전난간(398km), 가드레일(215km), 안내·경고판(62,809개), CCTV(5,664대)

이를 위하여, 작년부터 안전대책시설 예산을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, ‘23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한 CCTV 추가 설치(492대, 254억 원)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사고 위험 요소의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.

이병호 사장은 “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선도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” 며, “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삶터, 안전한 농어촌을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